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복지+ 센터 이용 및 상담사례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용자 사례 ①】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득이 불안정했던 A씨는 생계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생계비 용도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지난 8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하게 되었다.

소액생계비대출 5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복합상담을 받아야 했는데,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자 상담직원이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주어 참여하게 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A씨는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고용연계까지 해주어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게되었다”며, “고용지원제도와 같은 유용한 제도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안내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용자 사례 ②】

불규칙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며 취업을 준비 중이던 청년 B씨는 햇살론유스 300만원을 대출받아 급한 생계자금을 해결하였다. 이후 우연한 계기로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리플렛을 보고 신청하여 현재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B씨는 “현재 국민취업제도 참여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햇살론유스를 받을 때도 고용지원제도를 같이 안내받았다면 지금보다 더 빨리 취업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었을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며, “햇살론유스처럼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할 때 고용지원제도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으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용자 사례 ③】

대학 재학 중 학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을 받았던 C씨는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게 되었다.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으나 채무를 전부 상환하기에는 막막하여 채무조정 상담을 받아보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갔다. 채무조정 상담을 받다가 현재 아르바이트로 생계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자 상담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상담받아보라고 했지만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먼 곳에 위치한 탓에 아직까지도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

C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취업상담을 받으러 또 시간을 내서 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주 부담이 되는 일”이라며, 채무조정과 고용지원제도 상담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고용복지+센터 이용자 사례 ④】

생계급여수급자인 D씨는 배우자 간병을 하며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실질적인 가장인 D씨는 안정적인 일자리 구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였고, 상담이나 직업심리검사 등 여러 차례의 취업지원을 받으며 바리스타라는 목표를 설계하여 취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취업 상담 과정에서 소액의 생활비가 필요했지만 별도로 서민금융제도를 안내받지는 못하여 소액생계비대출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있는 줄 몰라 고금리 대부업체까지 알아보던 중 언론매체를 통해 100만원 이하의 소액의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것을 알게 되었다. D씨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 본인과 같이 생활자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이라며, “고용지원제도 뿐 아니라 서민금융 지원제도도 같이 안내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사 사례 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E씨는 센터에서 많은 이용자분들을 만나다보니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어려운 취업시장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다.

E씨는 “이런 시기에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분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드리며 더욱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이나 취업경험 같은 요건을 심사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말을 들으면 이용자분들이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까봐 지원을 해보지도 않고 단념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웠다”며, “서민금융 이용자분들이 망설이지 않고 지원해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시면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안내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소액생계비대출 외에도 고용지원제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은 것을 느낀다며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연계해드릴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면 서민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고용복지+센터 상담사 사례 ②】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근무 중인 F씨는 여러 방문자분들을 상담하다보면 취업의지가 있지만 부족한 정보 등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취업진로를 설계하고 참여수당을 지급해드리며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정서적 지원과 직업훈련 지원도 해드리고 있다. 다만, 긴급한 생계자금이 필요한 내담자에게는 같은 센터 내 서민금융 상담사가 없으면 멀리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안내해드려야 하는데 그러면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있었다.

A씨는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은 무직자나 불안정근로자분들이 상당수라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신데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 아쉬웠다”며, “서민금융과 같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